

# 吐血·嘔血의 病因에 關한 文獻的 考察

—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內科學教室 —  
鄭智天·任宰訓

## I. 緒 論

出血은 血液이 正常循行經路를 벗어나 體外로 流出되는 疾患을 總稱하는 것으로 東洋醫學의 內科學 分野에서는 대체로 耳目口鼻의 上部로 上溢하는 경우와 下部인 大小便으로 나가는 경우, 그리고 肌膚로 滲出되는 것으로 나누어 說明하고 있다.<sup>7,14)</sup>

이 가운데 吐血·嘔血은 ‘從胃而上溢于口者’<sup>3,7)</sup>라 하여 胃에서 口腔을 통해 逆出되는 것으로, 黃帝內經<sup>4)</sup>에 嘔血이란 名稱이 나타나고 漢代의 金匱要略<sup>31)</sup>에 嘔血이 처음 記載되어 있다.

後代에 이를 區別하여 巢<sup>10,28)</sup> 등이 內傷吐血 3種과 傷寒吐血을 論하고 嘔血은 七情으로 因해 肝과 心を 傷하여 發生한다고 하였고, 李<sup>2,3,6,21)</sup> 등은 嘔逆聲을 내면서

出血하는 경우를 嘔血, 嘔逆聲 없이 大量으로 出血하는 것을 吐血이라 하였으나 近代에 이르러 臨床治療에서 큰 차이는 없다고 하였다.<sup>6,7,14,17)</sup>

病因으로는 巢<sup>10,11,28)</sup> 등이 勞倦·虛損·飲食·過飲 등을, 王<sup>16,22)</sup> 등이 氣上逆을, 嚴<sup>13,15,18,27)</sup> 등은 火熱을 主된 것으로 보았고, 治療에 있어서도 朱<sup>9,20,30)</sup> 등은 補陰抑火를, 王<sup>16,22)</sup> 등은 順氣를, 繆<sup>8,12,23,25)</sup> 등은 三法을, 唐<sup>6)</sup>은 四法을 各各 주장하였다.

이와같이 吐血·嘔血의 病因·治療에 對하여 多樣한 見解가 있으나 지금까지 뚜렷한 文獻的 研究가 보이지 않으므로 著者는 臨床治療에 도움을 얻고자 우선 病因에 對해 歷代의 文獻을 中心으로 考察·檢討하여 報告하는 바이다.

## II. 文 獻 資 料

書 名	病 因 病 理
黃 帝 內 經 <sup>4)</sup>	<p>舉 痛 論 怒則氣逆 甚則嘔血.</p> <p>生 氣 通 天 論 陽氣者 大怒則形氣絕而血菀於上 使人薄厥.</p> <p>厥 論 太陽厥逆 僵仆嘔血.</p> <p>陽明厥逆 喘欬身熱 善驚駭嘔血.</p> <p>氣 交 變 大 論 歲火太過 炎暑流行 金肺受邪 民病 血溢血泄.</p> <p>歲金太過 燥氣流行 肝木受邪 甚而血溢.</p> <p>至 眞 要 大 論 少陽之復 火氣內發 血溢血泄.</p> <p>太陽司天 寒淫所勝 血變于中 民病 嘔血血泄.</p> <p>太陽在泉 寒淫所勝 民病血見.</p> <p>太陰在泉 濕淫所勝 民病血見.</p> <p>六元正氣大論 少陰司天之政 水火寒熱持于氣交 熱病生于上 冷病生于下 寒熱凌犯 民病血溢血泄.</p> <p>太陰司天之政 風濕相搏 民病血溢.</p>

書名	病因病理
金匱要略 <sup>31)</sup>	病人面無血色 無寒熱 脉沈弦者衄 浮弱手按之 絕者下血 煩咳者必吐血。 夫酒客咳者 必致吐血 此因極飲過度所致也。 夫吐血 咳逆上氣 其脉數而有熱 不得臥者死。
諸病源候論 <sup>10)</sup>	吐血候 皆有六虛損及 飲酒勞倦所致。 上焦有邪則 傷諸臟→血下入於胃→胃得血則悶滿氣逆→吐血。 內衄：近心肺間津出還流入於內。 肺疽：飲酒之後。 傷胃：飲食大飽之後…因傷損胃口。 虛勞吐血候 勞傷臟腑 傷損極虛→血妄行→胸膈氣逆→吐血。 傷寒吐血候 陽受邪熱→不發汗→熱毒入深·結於五臟 內有於積→吐血。 嘔血候 愁憂思慮則傷心 悲怒氣逆上則傷肝→嘔血。 虛勞嘔血候 內傷損於臟 勞傷於血氣 肝傷→嘔血。
千金要方 <sup>11)</sup>	吐血 內衄：勞倦所傷 血從心肺 流入於胃。 肺疽：飲酒過劇。 傷胃：飲食過飽。 關肺胃 總由肝傷不能藏血 胆氣逆滿。
活人書 <sup>29)</sup>	傷寒吐血 諸病源候論 引用。
聖濟總錄 <sup>28)</sup>	吐血嘔血 諸病源候論 引用。
素問玄機原病式 <sup>18)</sup>	血溢者上出也，熱甚則 血有餘而妄行。
三因極一病證方論 <sup>32)</sup>	吐血 因四氣傷於外 七情動於內 及飲食房勞 墜墮傷損。 傷胃吐血：飲食過度傷胃 或胃虛不能消化。 肺疽吐血：因飲啖辛熱 熱燥傷肺 血得熱則溢。 折傷吐血：因墮閃肭 致傷五臟。
濟生方 <sup>15)</sup>	吐血 因大虛損 或飲酒過度 或強食過飽 或飲啖辛熱 或憂思悲怒 洞擾三經(肺主氣 心主血 肝藏血)，折傷。 血之妄行 未有不因熱之所發。
仁齋直指 <sup>13)</sup>	出血等類 大抵多因蓄熱。 氣虛挾寒 陽虛陰必走。 暴喜傷心 暴怒傷肝 勞役太過 飲酒 墜墮 積熱三焦→陰火 沸騰 血從火起→錯經妄行而出諸竅。
丹溪心法 <sup>30)</sup>	吐血 陽盛陰虛 故血不得下行 因火炎上之勢而上出。 嘔血 火載血上 錯經妄行，怒氣逆 甚則嘔血。

書名	病因病理
證治準繩 <sup>16)</sup>	口鼻出血 上盛下虛 有升無降 血隨氣上 越出上竅。 氣虛不能攝，怒氣傷肝，打撲傷損，勞心，飲酒傷胃。
醫學入門 <sup>21)</sup>	血越上竅 皆是陽盛陰虛 有升無降，陰盛陽虛 間有之。 吐血 內傷外感及飲食房勞 墜閃→五臟有傷 血聚膈間 從胃皖出。 陽盛：積熱怒火，多因飲食辛熱 傷於肺胃 大怒 五志火動。 陰盛：多因勞力傷氣 勞心過度 思色入房 勞傷心腎 陰虛火動。 嘔血 與吐 無大異 成盆無聲為吐 成碗有聲為嘔。
景岳全書 <sup>24)</sup>	吐血 勞損而氣虛，陰虛陽盛(水不濟火)，火盛而逼血上行， 飲酒過多，憂思過度 損傷心脾 中氣虧損 不能收攝，暑氣通心 火毒刑肺傷氣，色慾勞傷過度 無根虛火 浮泛於上， 脾腎氣虛不能攝血，內傷敗劇 血脫氣亦脫。 嘔血 怒氣傷肝 肝火盛，肝氣逆。
醫宗必讀 <sup>22)</sup>	吐血 上盛下虛 血隨氣上。 氣虛不能攝血，怒氣傷肝，勞心，酒傷，飲食傷胃，勞力。
醫貫 <sup>27)</sup>	吐血 上炎之火，六氣俱能使人血溢，怒氣傷肝，鬱氣傷脾， 飲酒過多傷胃，過啖炙煇辛熱等物。
證治彙補 <sup>20)</sup>	血越上竅 陽盛陰虛 有升無降。 吐血 四氣傷於外，七情動于中，飲食房勞，墜閃勞損。 嘔血 怒則氣逆 甚則嘔血，血宛于上 薄厥。
張氏醫通 <sup>25)</sup>	吐血 氣逆血溢 火升血泛。 傷寒吐血 屬傳經裏證。不汗→熱毒入內 迫血妄行→胃皖而出。 嘔血 血從腹脇而上 大嘔而出乃肝火內旺。 暴怒火逆傷肝，極勞奔馳傷肝，竭力房勞傷肝。
醫學心悟 <sup>26)</sup>	吐血 外感—風寒，傷暑，燥火焚金。 內傷—陰虛，陽虛，臟寒，怒動肝火，傷力。
證治指南 <sup>9)</sup>	吐血 四氣傷於外，七情動於中，嗜飲食辛，房勞閃墜。 血越上竅 陽盛陰虛 有升無降。 嘔血 暴怒火逆傷肝，極勞奔馳傷肝，竭力房勞傷腎。
沈氏尊生書 <sup>12)</sup>	吐血 七情妄動—陽火相迫。 氣虛挾寒·血亦妄行 陽虛陰必走。 嘔血 大怒肝氣上逆，飲酒，飲食過度，負重努力，虛勞。
類證治裁 <sup>23)</sup>	吐血 外因…火風暑燥。 內因…肝腎心脾之損。 不內外因…墜跌努力 烟酒之傷。 嘔血 血從皖脇嘔出 係木火乘胃所致。

書 名	病 因 病 理
	由暴怒火逆 傷肝動血. 負重努力, 飲酒, 房勞竭力傷腎, 虛勞
血 證 論 <sup>6)</sup>	吐血嘔血 同是血出口中 治與吐血無異. 吐無聲而嘔有聲 證既小異 吐輕而嘔重 吐則其氣尚順 嘔則氣更逆. 吐血病在於胃 嘔血病在於肝 嘔雖屬於肝胆 未有不關胃府. 吐血 由背上來者 治肺為主, 由脇下來者 治肝為主. 肝肺雖係血之來路 吐出實則胃主之. 寒證者 陽不攝陰 陰血因以走溢 或內寒外熱 虛寒假熱. 因外感 寒犯血分 外束閉而內逆壅. 屬實證者 十居六七 屬虛屬寒者 十中一二.
東 醫 寶 鑑 <sup>3)</sup>	成碗有聲爲嘔 成盆無聲爲吐(入門). 千金方 吐血 三種 引用.
醫 門 寶 鑑 <sup>2)</sup>	勞役過多 嗜欲無節 五志之火妄動逼血.
濟 家 新 編 <sup>1)</sup>	勞倦飲食, 酒熱, 大飽.

### Ⅲ. 總括 및 考察

#### 1. 吐血의 病因

內經<sup>4)</sup>에서는 太陽 및 陽明厥逆에 依한 것과 外感에 依해 發生함을 言及하였는데, 趙<sup>27)</sup>에 依하면 六氣가 모두 血溢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怒氣에 의해 嘔血과 薄厥이 일어난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七情으로 吐血이 發生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張<sup>31)</sup>은 煩咳者 必吐血이라 한 것으로 보아 咳血을 吐血에 包含시킨 것 같으며, 極飲過度로 因한 吐血을 말했는데 後代에 張<sup>25)</sup>은 이를 孫<sup>11)</sup>이 말한 傷胃吐血에 해당된다고 하였으나, 孫은 飲酒過劇에 依한 吐血을 肺疽라 하였는바 酒의 熱毒에 傷하여 肺疽吐血이 될 수 있고 飲酒로 胃虛해져 傷胃吐血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巢<sup>10)</sup>는 大虛損과 飲酒勞倦을 主된 原因으로 보고 心肺間의 津液出流에 依한 內軀과 飲酒後에 생기는 肺疽, 飲食大飽 後에 胃口를 損傷하여 發生하는 傷胃吐血의 3種

으로 區分하였는데 曹<sup>28)</sup> 등이 이를 따랐고, 勞傷으로 臟腑가 大虛해져 생기는 虛勞吐血도 說明하였다. 또한 陽氣가 邪熱을 받았을 때 發汗을 시키지 않아서 熱毒이 深部로 들어가 五臟에 結하여 內部에 瘀積이 생겨 吐血하는 傷寒吐血을 論하였고, 朱<sup>29)</sup>가 이를 引用하였는데 이는 風寒外感을 發散시키지 못해 熱毒으로 因해 吐血케 된 것이다.

孫<sup>11)</sup>은 巢와 마찬가지로 3種으로 나누었는데 內軀을 勞倦에 依한 것이라 하였으며, 臟腑의 肺胃가 관련되나 全體의 肝傷하여 藏血하지 못하고 胆氣가 逆滿한 것이라 하여 肝胆의 上升之氣가 관계됨을 주장하였다.

劉<sup>18)</sup>는 主火論者로서 血溢의 病因으로 熱의 重要함을 強調하여 寒이라 한 것은 잘못이라 하였다.

陳<sup>32)</sup>는 三因으로 나누어 外因으로 風寒暑濕의 四氣를, 內因으로 七情을, 不內外因으로 飲食 房勞와 墜墮傷損을 말하였는데, 外因에 燥와 火가 빠져 있어 內經에서 六氣

가 모두 失血케 한다는 것과 다르나, 火는 暑에 包含시켜볼 수 있을 것 같다. 또 飲食으로 因한 것으로 傷胃吐血과 肺疽吐血을 巢와 孫의 理論에서 發展시켜 飲食過度하여 傷胃하였거나 胃虛하여 不能消化하므로 發生하고, 辛熱한 飲食을 먹어 그 熱과 燥가 肺와 胃를 傷하여 發生한다고 하였는데 飲酒過度에 의한 것도 여기에 包含시킬 수 있겠다. 그리고 처음으로 墜閃打撲에 依한 折傷吐血을 論하였다.

嚴<sup>15)</sup>은 大虛損, 飲酒過度, 強食過飽, 飲啖辛熱, 憂思恚怒 등을 原因으로 말하였고 主氣하는 肺와 主血하는 心, 藏血하는 肝의 三臟이 관련된 것으로 보았으며, 劉와 마찬가지로 病因으로서 熱을 강조하였다.

揚<sup>13)</sup>은 蓄熱을 主된 原因으로 보았는데 喜怒, 勞役太過, 飲酒, 墜墮 등의 原因으로 火가 생겨 出血하게 되는 것으로 說明하였고, 朱<sup>30)</sup>는 陽盛陰虛하여 火炎上升으로 發生한다고 하였으며, 王<sup>16,22)</sup> 등은 上盛下虛하여 血隨氣上하는 것을 主된 原因으로 보았다.

李<sup>21)</sup>는 陽盛吐血과 陰盛吐血로 나누었는데 그 主된 原因으로 陽盛은 積熱, 怒火, 飲食辛熱 등이고 陰盛은 勞力傷氣, 勞心過度 등이라 하였고, 陽盛陰虛가 많고 陰盛陽虛는 간혹 있다고 하였다.

張<sup>24)</sup>는 病因을 크게 火와 氣逆 및 非火非氣逆으로 三分하여 說明하였는데 그 중 氣逆은 嘔血의 原因이라 하였고, 火로 인한 것으로는 陰虛陽盛하여 水不濟火, 火盛而逼血上行, 暑氣通心, 色欲過度로 인해 虛火上升하여 發生하는 것 등이 있으며 飲酒過多로 因한 것도 여기에 넣을 수 있겠다. 非火非氣逆證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勞損而氣虛, 憂思過度로 心脾를 損傷한 경우, 脾腎氣虛하여 不能攝血, 內傷敗劇하여 暴吐血하는 경우 등

이 있는데 이는 巢 등이 말한 大虛損에 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病因을 이와같이 크게 3가지로 분류하는 것은 臨床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趙<sup>27)</sup>는 上炎之火를 主된 것으로 하면서 陳의 三因을 引用하였으며 李<sup>20)</sup>는 陳<sup>32)</sup>과 李<sup>21)</sup>의 說을 따랐다.

張<sup>25)</sup>은 氣逆, 火升, 膈膜傷 등을 말하였으며 巢의 說을 發展시켜 傷寒吐血을 傳經裏證이라 하였는데 張<sup>24)</sup>의 火盛逼血 上行吐血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程<sup>26)</sup>은 外感으로 風寒暑燥火를 內傷으로 陰虛, 陽虛, 臟寒, 怒動肝火, 傷力 등을 열거하였고, 徐<sup>9)</sup>는 陳과 朱<sup>30)</sup>의 說을 따라 說明하였으며, 沈<sup>12)</sup>은 七情妄動에 依한 陽火相迫과 氣虛扶寒에 依한 陽虛陰必走의 두가지 要因으로 大別하였다.

許<sup>3)</sup>는 孫의 說을 引用하였고 周<sup>2)</sup>와 康<sup>1)</sup>은 대체로 李<sup>21)</sup>의 說을 따랐다.

林<sup>23)</sup>은 外因으로 火風暑燥, 內因으로 肝心腎脾之損을, 不內外因으로 墜跌努力, 煙酒 등을 들었는데 諸家의 說에서 벗어남이 없다.

唐<sup>6)</sup>은 여러가지 原因을 제시하면서 주로 治療에 관해 詳述하였는데 實證에 屬한 것이 十居六七이요, 虛證·寒證에 屬하는 것이 十居一二라 하였다. 그리고 吐血의 來路로서 背上來와 脇下來는 各各 肺와 肝에 연계되어 있으나 실은 胃가 主된 것이라 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考察해 보면 外因 六氣面에서 內經에 六氣가 모두 病因이 됨을言及한 以後 趙<sup>27)</sup>가 이어 받았고 陳 등이 風寒暑濕의 四氣를 말했으나 火는 暑에 包含시킬 수 있으며, 程과 林은 燥도 病因으로 作用한다 하였다. 그런데 陳과 林이 說明한 風寒에 依한 吐血은 咳血로 생각되어진다.

內因 七情으로 보면 內經 以來 歷代醫家들이 七情에 依한 吐血을 말했는데 대부분 怒·喜·憂·思였고 怒傷肝하여 火氣上升하거나 憂思過度로 心脾를 傷하여 發生하는 것으로 說明하였다.

그리고, 飲食傷에 依한 것은 대부분의 醫家들이 過食炙燻辛熱物이나 飲酒過度에 의해 熱盛하여 吐血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巢<sup>10, 11, 32</sup>) 등의 肺疽吐血에 해당되고, 陳이 傷胃吐血에 理中湯을 쓴다고 한 것은 胃가 虛寒한 까닭으로 볼 수 있으며 近來에 王<sup>17</sup>)에 의하면 飲食大飽하거나 冷物을 먹어 胃中冷해져 吐血한다고 하였는바 脾胃가 虛해져 있는 상태에서 冷한 飲食을 섭취함으로써 발현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飲酒吐血에 있어서도 胃虛해졌거나 冷酒인 경우에는 虛寒의 범주에 넣을 수 있을 것 같다.

勞倦에 의한 것으로는 巢 以來로 諸家들이 包含시켰는데 巢의 虛勞吐血도 勞倦過度로 臟腑를 傷한 痰으로 發生한 것이며, 孫은 內衄吐血을 勞倦에 의한 것이라 하였고, 李<sup>21</sup>)는 陰盛吐血의 原因으로 勞力傷氣·勞傷胃虛·勞力傷肺 등을 주장하였으며, 張<sup>24</sup>)은 勞損으로 眞陰을 傷하여 吐血함을 말하였고, 中醫內科學<sup>7</sup>)에서는 勞倦過度로 損傷脾胃하여 吐血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勞倦으로 陰虛·陽虛 및 陰陽兩虛의 虛勞狀態가 되어 吐血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房勞傷은 陳<sup>32</sup>) 以來로 病因으로 記述되어 있는데 李<sup>21</sup>)는 思色하여 強力入房으로 勞傷心腎하여 陰虛火動해져 吐血한다고 하였으며, 張<sup>24</sup>)은 色慾過度로 無根虛火가 上部에 올라 格陽失血한다 하였다.

墜墮挫閃에 의한 吐血도 陳이 처음 折傷吐血을 제창한 後로 諸家들이 不內外因의 하나에 包含시켰다.

病因을 寒熱面으로 살펴보면 劉<sup>15, 18</sup>) 등

이 熱을 강조하고 寒은 잘못된 것이라 하였고, 楊<sup>13</sup>)도 熱이 多因이라 하였으며 朱<sup>27, 30</sup>) 등도 火를 主된 것으로 보았으나 여러 醫家들은 寒도 病因으로 作用함을 論하였다. 外感寒邪의 경우에 唐<sup>6</sup>)에 의하면 寒이 血分을 犯하여 外部가 束閉되어 內部壅逆함으로서 吐血을 일으킨다 하였으며, 近來에 歐<sup>5</sup>)도 病因으로 寒邪束閉를 주장하면서 先有伏熱한데 續感風寒하거나 外邪不解하여 經絡에 熱이 鬱滯되어 發生한다고 說明하였다. 또한 內部的인 寒으로는 楊<sup>13</sup>) 등이 氣虛挾寒하니 陽虛함으로 陰血이 走溢하여 吐血한다고 하였고, 程은 臟寒을 包含시켰으며 唐은 寒證으로 內寒外熱하거나 虛寒假熱한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吐血의 主된 病因으로 作用하는 火는 實火와 虛火로 나눌 수 있으니 實火로는 六淫外感에 의한 火, 傷寒吐血에서의 熱毒, 過食辛熱物에 의한 火, 七情에 의한 肝火 등이 있고, 虛火에는 房勞傷에 의한 格陽虛火, 臟閃損傷으로 陰虛함으로서 陽盛해져 火가 생긴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다.

陰陽의 관점에서 보면 吐血은 대개 陽盛陰虛하여 發生한다고 하였는데 李<sup>21</sup>)는 크게 陽盛과 陰盛으로 나누면서 陽盛陰虛가 대부분이고 陽虛陰盛은 적다고 하였다. 세분해 보면 實熱이 盛한 陽盛, 水不濟火하는 陰虛陽盛, 그리고 氣虛挾寒하여 陽虛陰盛한 경우, 中氣虛·勞力傷氣 등의 陽虛한 경우, 陰虛한 경우, 血脫氣脫한 陰陽兩虛의 경우 등이 있다.

## 2. 吐血·嘔血의 區分 및 嘔血의 病因

內經에는 嘔血만 나타나고 吐血은 보이지 않으나 上部出血을 總稱하는 血溢이 記載되어 있는데 怒에 의해 氣가 逆上하여 嘔血과 薄厥이 發生한다고 한 것은 血溢 가운데 嘔血을 구분하여 七情 中の 怒에 의해 傷肝하

여 일어난다고 여긴 것으로 보여지며 後代 醫家들은 대개 이에 立脚하여 嘔血을 論하였다.

巢는 처음으로 吐血과 嘔血을 나누어 說明하였으니 嘔血은 內經의 理論에 덧붙여 愁憂思慮하여 傷心하고 恚怒로 氣가 逆上하여 傷肝한 때문이고, 虛勞嘔血도 역시 肝이 傷하여 發生한다 하였고 曹<sup>28)</sup> 등도 이를 따랐다.

朱<sup>30)</sup>는 嘔血을 火載血上하여 錯經妄行한 것으로 說明하였으니 吐血에 比해 重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怒氣로 因한 것은 더욱 甚한 것이라 하였다.

李<sup>21)</sup>는 吐血과 嘔血이 큰 차이는 없다고 하면서도 有聲과 無聲으로 구별하고 量的으로도 많고 적음을 얘기했는데 嘔吐에 있어 嘔가 陽明에 屬해 有聲有物, 吐가 太陽에 屬해 有物無聲이라 한 것과 연관되는 것으로 보이며, 許<sup>2,3)</sup> 등도 이를 따랐다.

張<sup>24)</sup>은 吐血을 病因에 따라 여러가지로 分類하면서 嘔血은 朱<sup>30)</sup>의 說과 같이 怒氣로 傷肝한 것에 局限하여 肝火盛과 肝氣逆으로 說明하였으며 以後 李<sup>12,20,23)</sup> 등도 대체로 이를 따랐는데 특히 林은 木火乘胃한 瘕이라 하였다.

張<sup>25)</sup>은 嘔血을 血이 腹脇을 따라 上升한 것이라 하였으니 肝經의 流注와 關聯되어 있으며 林도 이를 따랐다. 또한 그 病因을 暴怒太過, 極勞奔馳, 竭力入房으로 傷肝한 것이라 하였는데 徐<sup>9)</sup>와 林은 竭力入房으로 傷腎한다 하였다.

李<sup>20)</sup>는 內經에 나온 薄厥을 嘔血에 包含시켰는데 이는 吐血에 比해 嘔血이 重症임을 말한 것이라 하겠다.

唐은 吐血 嘔血이 모두 口中으로 血出하는 것으로서 治法은 차이가 없고 證이 有聲·無聲으로 약간 차이가 있으며 吐血은 氣가

順하므로 輕症이고 嘔血은 氣逆하므로 重症이라 하였고 吐血은 病이 胃에 있고 嘔血은 肝에 있으나 胃와도 關係가 있다고 하였다.

한편 近來의 醫家로서 陸<sup>19)</sup>은 吐血 嘔血을 역시 有聲無聲으로 區別하였으며 嘔血 가운데도 重하면 蛙聲을, 輕하면 呃逆을 發한다고 하였고, 臟腑的으로 吐血은 胃에 屬하여 順전히 血塊를 出하는 것이고 嘔血은 肝에 屬하니 肝氣가 沸逆하여 胃를 犯하여 發生한다 하였다.

또한 中醫內科學에서는 從口出하고 量이 甚多한 것은 吐血, 血이 嘔吐를 따라 出하고 血色紫暗하여 食物殘滓가 包含된 것을 嘔血이라 하였으나 실제로 區別은 쉽지 않다고 하였으며, 中醫學問答<sup>14)</sup>, 中醫內科辨證學에서도 역시 그렇다고 하였다.

以上을 종합하면 吐血과 嘔血을 區別하는 主안점은 有聲과 無聲인데 이는 氣와 關聯되어 있는 것으로 氣逆이 甚한 경우 嘔逆聲을 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嘔血은 出血量이 吐血에 比해 적으나 症은 重한 것이며 關係 臟腑에 있어서도 肝火·肝氣逆이 주된 原因이므로 肝과 關聯있으며 胃 및 心·腎과도 關聯된다.

嘔血의 病因을 要約해 보면 肝火를 비롯하여 肝氣逆, 負重努力, 飲酒, 飲食過度, 虛勞 等인데 吐血의 病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嘔血은 주로 怒氣에 依해 傷肝하여 嘔逆聲을 내면서 血을 吐出하는 重症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吐血·嘔血은 臨床에 있어서 區別하지 않고 張<sup>24)</sup>의 분류에 따라 火證, 氣逆證 및 非火非氣逆證으로 나누어 治療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思慮된다.

#### IV. 結 論

吐血 嘔血의 病因에 關하여 歷代文獻을 中

心으로 考察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吐血의 病因은 外因으로 六淫이 모두 包含되며, 內因으로는 七情 가운데 怒·喜·憂·思이고, 不內外因으로는 飲食傷으로 炙燻辛熱物과 飲酒의 過度 및 飲食大飽와 冷物攝取, 勞倦으로 臟腑虛損, 房勞過度, 그리고 墜閃 등으로 要約된다.

2. 吐血은 寒熱 面에서는 熱로 因한 것이 대부분이나 寒으로 因해 發生되기도 하며 熱은 虛火와 實火로 나눌 수 있고, 陰陽의 盛衰로 보면 陽盛陰虛가 많고 陽虛陰盛한 경우는 적다.

3. 吐血과 嘔血은 有聲과 無聲으로 區別되는데 주로 怒에 依해 傷肝하여 發生되며 氣逆이 甚하므로 嘔逆聲을 내는 것이 嘔血로서 吐血에 비해 出血量은 적으나 重症이다.

4. 吐血 嘔血은 臨床에서 火證, 氣逆證 및 非火非氣逆證으로 나누어 治療할 수 있을 것으로 思慮된다.

### 參 考 文 獻

1. 康命吉: 濟衆新篇, 서울, 杏林書院, 1975, pp.72-73.
2. 周命新: 醫門寶鑑, 서울, 杏林書院, 1971, pp.77-79.
3. 許 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76, pp.106-109.
4. 洪元植編: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14, 79, 137, 138, 153, 154, 179, 180, 182.
5. 歐陽錡: 證治發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p.278-285.
6. 唐容川: 血證論,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77, pp.17-34.
7. 上海中醫學院編: 中醫內科學, 香港, 商務印書館, 1977, pp.137-143.
8. 繆希壘: 先醒齋醫學廣筆記, 江蘇,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1, pp.72-75.
9. 徐大椿: 證治指南(徐大椿醫書 32種上), 서울, 慶熙韓醫大, 1974, pp.92-95.
10. 巢元方: 諸病源候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24, 48, 55, 63, 120, 143.
11. 孫思邈: 千金要方, 서울, 杏林出版社, 1976, pp.475-481.
12. 沈金鰲: 沈氏尊生書, 臺北, 自由出版社, 1972, pp.423-428.
13. 楊士瀛: 仁齋直指方, 臺北, 新文豐出版社, 1981, pp.1080-1081.
14. 楊醫亞主編: 中醫學問答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5, pp.95-98.
15. 嚴用和: 濟生方(四庫全書 卷743),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p.465-466.
16. 王肯堂: 證治準繩, 서울, 翰成社, 1982, pp.173-181.
17. 王顯明: 中醫內科辨證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p.555-562.
18. 劉完素: 素問玄機原病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87.
19. 陸青節: 萬病醫藥顧問, 臺北, 大中國圖書公社, 1969, pp.55-56.
20. 李用粹: 證治彙補, 臺北, 萬葉出版社, 1975, pp.70-74, 281-287.
21. 李 梴: 編註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1982, 卷4, pp.63-69, 416-423.
22. 李中梓: 醫宗必讀, 臺南, 綜合出版社, 1976, p.76.
23. 林珮琴: 類證治裁, 臺北, 旋風出版社,



- 1978, pp.133-135.
24. 張介賓：景岳全書，臺北，國風出版社，  
1972, pp.515-520.
25. 張路玉：張氏醫通，新竹，金藏書局，  
1976, pp.183-193, p.964.
26. 程國彭：醫學心悟，臺北，文光圖書公司，  
1982, pp.154-155.
27. 趙獻可：醫貫，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2, pp.36-48, p.63.
28. 曹孝忠外：聖濟總錄，臺北，新文豐出版  
社，1978, p.585,590.
29. 朱 肱：活人書(醫部全錄 卷6)，서울，  
成輔社，1982, p.116.
30. 朱震亨：丹溪心法，臺北，五洲出版社，  
1981, 卷 11, pp.9-10.
31. 中醫研究院編：金匱要略，東京，中國漢  
方，1982, pp.297-299, p.302,  
305.
32. 陳 言：三因極一病證方論，北京，人民  
衛生出版社，1983, pp.115-  
118.